

[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]

이 세상과 저 세상

"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"(요 3:3).

우리에게는 '이 세상'과 '저 세상'이 있습니다.
우리가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.

그래서 '하나님 나라'에 대해 말하면 불안합니다.
그곳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.

삶에 대한 말을 하면 괜찮지만
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.

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
저 세상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.

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오면
눈물 흘리며 괴로워합니다.

병이 들면 불안해 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
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?
영원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지만 불안해집니다.
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

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. 사람입니다.
우리는 식물과 다릅니다.
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.
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이 있다는 말입니다.

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 영원으로 가는
문을 깨닫지 못할 때 방황하는 것입니다.
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

죽으면 천국에 가든,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.

- 하용조